

## 언어와 문화: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황 적 루  
(영어교육과)

### I. 서 론

한 언어가 갖는 특성이 그 언어를 상용하는 집단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결정짓고 그 집단 구성원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한다는 언어결정론(linguistic determinism)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언어란 적어도 살아있는 언어란, 그것이 쓰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중립적일 수 없고 그 사회 또는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게 마련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옛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점을 중시하여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쳐 이른바 순수언어학이라는 기치를 내걸은 구조주의적 언어학 특히 변형생성이론을 바탕으로 한 언어이론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언어학계를 휩쓸게 되자 언어와 사회 및 문화에 관한 연구들은 상당기간동안 그늘에 가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사용맥락 속에서의 언어에 관한 관심이 언어학의 여러 영역에서 고조되면서 언어와 문화에 관한 관심과 연구의 물결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한때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데 했던 언어상대성개설이 “부활”을 맞고 있으며, 이 부활이 단순한 관심의 부활이 아니라 이론과 분석의 틀 등에서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해석적 사회언어학(Interpretive Sociolinguistics)”, “비평적 언어학(Critical Linguistics)” 등의 기치를 내세운 학자들이 단순히 기술적(descriptive)인 차원에서 언어와 사회, 문화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던 과거의 접근법에 강한 반기를 들고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언어와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등의 역동적인 관계를 밝히려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최근의 연구물결 중에서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Lee (1992)의 접근법과 분석틀이다. Lee는 인간언어는 언어적 기호화(encoding)와 해석(decoding)에 있어서의 분류(classification)와 선택(selection)의 과정을—이 두 과정은 시각(perspective)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된다—통해 우리의 일차적 경험에 구조(structure)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세계관(世界觀)을 매개(媒介) 내지는 조정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같은 분석틀 속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를 비교할 때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례적(事例的)인 기술(記述)의 차원을 넘지 못하였으며 보다 본격적인 연구의 가능성 모색을 위한 서론적인 것에 불과하다.

## II. 분 류 (Classification)

언어가 문화와 관계를 이르게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람의 경험세계를 여러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여 그것을 기호화 하는데서 시작한다. Lee (1992)는 이런 분류의 기능이 세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1) 개개의 어휘, 2) 문법적 요소 3) 문법적 또는 의미적 범주들 간의 관계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단계이다.

### 1. 어휘에 의한 분류

세상의 사물이나 현상 개념 등은 존재론적으로 범주화되어 있어 그 분류 자체는 보편적이며 각 언어권마다 거기에 서로 다른 이름을 부쳐줄 뿐이라는 생각, 즉 언어는 단지 명명법(命名法: nomenclature)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이며 각 문화권 또는 언어권마다 세상의 사물이나 현상 개념 등을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이 일찍부터 Humboldt의 Weltanschauung, Sapir와 Whorf의 언어상대성가설(Linguistic Relativity Hypothesis) 등에 의해 지적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런 차이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Brown and Ford (1964)가 “의미-심리적 원리 (semantic-psychological principle)”라 부른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해서 한 언어의 어휘체계가 어떤 의미영역을 세분하여 구분하는 정도는 그 문화권에서의 그 영역의 중요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의미-심리적 원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명사에 의한 분류인데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대인관계에서의 호칭이 가장 현저한 예이다. 대인 관계가 수평적이고 평등적이며, 한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차지하는 자리보다는 한 개체로서의 개인이 더 존중되는 영어사회에서의 호칭은 크게 “칭호+성(姓): Title + Last Name”와 개인이름 (First Name) 두가지로 대분되며 이 둘의 변형들이 예외적으로 사용된다(Ervin-Tripp 1974 참조). 이에 반해 대인관계가 수직적이며 한 개체로서의 개인보다는 그가 속한 집단 또는 사회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훨씬 더 중시하는 한국어사회에서의 호칭은 20여개로 세분된다 (Hwang 1975, 1990 참조).

한국어 사회와 영어사회의 대인관계상의 문화적 차이는 친척어(kin terms)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장 간단한 예로 영어에는 “형/아우”, “언니/동생”의 구별이 없으며(elder brother/sister, younger brother/sister 등 수식어를 붙여 구분하는 것은 어휘에 의한 구분으로 보지 않는다), 영어사회에서는 uncle이라는 한 단어로 표시되는 관계가 한국어 사회에서는 본인이 어머니쪽이나 아버지쪽이나, 결혼을 했느냐 미혼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손위냐 아래냐, 그 관계가 혈연에 의한 것이냐 혼인에 의한 것이냐 등에 따라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부, 이모부로 세분될 뿐 아니라 격식 갖춤의 정도에 따른 문체적 변이형으로 숙부, 백부, 외숙부 등이 있다.

의미-심리적 원리에 의한 차이는 호칭이나 친척어가 아닌 일반명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말에서 “모, 벼, 쌀, 밥”으로 세분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한 범주로 분류하여 “rice”라는 한 단어로 기호화하는 것이다. 이는 두말 할 필요없이 쌀로 만든 음식이 영어문화권에서는 중요한 식품이 아닌데 비해 우리 민족에게는 옛부터 주식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이와 같은 설명은 에스키모어에는 눈을 세분하여 일컫는 단어가 많으며, 아랍어에는 아랍인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馬)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개로 세분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반대로 영어에서는 “neck”와 “throat”로 구분되는 신체부위가 우리 말에서는 다같이 “목”이 되어 “목이 아프다”라고 하면 말을 많이 하거나 감기가 걸려 인후가 아프다는 것인지 잠을 잘못 자거나 외상 등으로 밖에서 보는 목이 아프다는 것인지 애매해진다. 또다른 예로 영어에서 “knee”와 “lap”으로 구분하는 신체 부위가 우리 말에서는 다같이 “무릎”이며, 영어에서 “finger”와 “toe”로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우리 말에서는 “손”, “발”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하나 다같이 “가락”이라는 것 등이다. 이와같이 신체 부위를 분류해서 나타내는 말이 우리말 보다 영어에서 더 세분되어 있다는 차이를 서양문화에서는 일찍부터 의학뿐 아니라 미술분야를 위한 인체해부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로<sup>1</sup> 설명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언어에 나타난 분류상의 차이는 형용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한 예로 영어의 strong이라는 형용사가 갖는 의미영역은 아래 예에서 보듯이 매우 넓어서 우리말에서 여러 형용사로 나타내야 하는 영역을 포함 한다.

a strong horse(힘이 센 말)

a strong stick(단단한 막대기)

1. 서양에서의 인체해부는 기원전 400년경부터 희랍에서 허용되기 시작했으며 AD 100년대에 로마의 의사 Galen에 의해 본격화되었고 이태리 조각가 Leonardo da Vinci는 1500년 초반에 많은 인체해부도를 그렸다(The World Book Encyclopedia Vol.1, p. 224).

a strong possibility(큰 가능성)

strong whisky(독한 위스키)

strong coffee(진한 커피)

strong will(강한 의지)

영어에서 한 단어로 표현되는 형용사적 개념이 우리 말에서는 둘 이상의 개념으로 나누어지는 다른 예로 “cold: 춥다; 차다”, “hot: 덥다; 뜨겁다; 맵다”, “salty: 짜다; 짹짹하다; 짹짹하다” 등이 있다.

정확한 통계적 자료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형용사에 의한 개념분류, 특히 맛이나 색깔에 관한 개념분류가 우리 말에서 더 세분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문화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우리민족의 정서와 감각이 섬세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서로 다른 언어집단이 보이는 개념 분류상의 차이는 동사의 사용에서도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가 우리 말에서는 “(옷을)입는다”, “(모자를) 쓰다”, “(안경/장갑을) 끼다”, “(목걸이를) 걸다”, “(항수를) 바르다” 등 각기 다른 동작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동사로 표현되는 동작들이 영어에서는 “to have on one's body”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인식하여 “wear”라는 동사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 차이는 우리 문화가 옛부터 인간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세가지 요소로 의-식-주(衣食住)를 들면서 의(衣)를 맨먼저 내세워 가장 중요시 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영어에서보다 우리 말에서 세분되는 동사 개념의 다른 예로 “wash: 씻다, 빨다”, “cut: 자르다, 끊다, 베다, 깎다, 다듬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sup>2</sup> 다만 “wash: 씻다, 빨다”의 경우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이나 이들이 먹는 음식, 그 음식을 담는 그릇 등과 옷이나 그 밖의 천으로 된 것들을 구별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분류의 세분성의 문제는 아니지만 분류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예로서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가 come, go, walk 등 이른바 locomotion verbs와 관련된 것이다(조준학, 1979). Come과 go를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의 “오다” 및 “가다”와 비교해 볼 때 go와 “가다”의 경우의 의미영역상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come과 “오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I will come there right away.

May I come in?

I came over to your house last

\*내가 곧 그리 오겠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내가 어젯밤 너의 집에 왔었는데

2. 이런 동사들이 갖는 의미영역상의 차이는 문용(1979)에서 시도된 바와 같이 동사들이 갖는 의미자질(semantic features) 결합상의 차이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만 이 글의 주제인 문화적 특성을 부각 시키는데는 미흡하다.

night, but you weren't home.

내가 집에 없더라.

즉 위의 영어문장들은 모두 하자가 없는데 우리말 문장들은 “오겠다”, “와도”, “왔었는데”를 “가겠다”, “가도”, “갔었는데”로 바꾸어야 제대로 된 문장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의 영어문장들도 화자가 이 말을 할 당시에 청자는 화자와는 다른 곳에 있어야 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 영어표현은 청자중심적(hearer-oriented)이어서 움직이는 동작이 청자쪽에서 보면 come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나, 한국어의 경우는 화자중심(speaker-oriented)이어서 화자쪽에서 본 이들 행위들은 가는 것이지 오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영어가 청자중심이고 한국어가 화자중심임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들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2. 문법적요소(Grammatical Elements)에 의한 분류

문화집단간의 개념 분류상의 차이가 그들이 상용하는 언어의 문법상의 요소에 반영된 예는 시상(時相)분류, 성(性: gender) 구분, 품사분류, 명사의 가산(可算: countable) 불가산(不可算: uncountable) 구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상의 경우를 보면 영어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여 현재완료형과 단순과거형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있으나 우리 말에서는 그렇지 않아 John has found the money,와 John found the money,가 우리 말에서는 다같이 “존이 그 돈을 찾았다.”가 된다.<sup>3</sup> 성(性)의 개념은 영어에서 대명사형태로는 구분하나 그밖의 문법 사항으로서는 우리 말과 영어에서 다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품사상의 차이는 한 언어권에서 명사로 표현되는 사항이나 개념이 다른 언어에서는 동사로 표현되는 등의 차이를 말한다. Lee(1992: 5)에 인용된 Whorf의 예를 빌리면 영어에서 storm, wave, lightning, wind로 표현되는 개념들이 많은 다른 언어들에서는 동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영어로 옮기면 It is storming in the west, The sea is waving violently today, It is winding strongly outside와 같이 되는 문장들이 쓰이나 영어에서는 이들이 모두 명사로만 인식되어 위와같은 내용들을 문법적으로 옮은 문장으로 나타내려면 There's a storm in the west,

3. 우리 말의 “...(했)었다” 또는 “...(했)었었다”가 영어의 현재 완료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전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의 영향이 현재는 없어졌다는 뜻으로(예: 그 옷은 1985년에 유행했었으나 지금은 잘 안 입는다) 영어의 현재완료의 뜻과는 다르며, 후자는 영어의 현재완료형을 번역하기 위하여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며 우리 말로 자리잡았다 하더라도 그 뜻이 여기서 말하는 영어의 현재완료형의 뜻과는 다르다.

The waves are rough today, There is a strong wind outside라고 해야 한다. 이런 차이에 대해 Lee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이고 있다. 즉 위와 같은 개념들은 사건적 특성(event-like characteristics)과 사물적 특성(object-like characteristics) 둘 다를 지니고 있는데 문화권마다 이중 어느쪽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이들을 명사 또는 동사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우리 말과 영어의 비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study, love, speak, sing, discuss, imagine, succeed, think, 등 동사로 표현되는 개념들이 우리 말에서는 “공부하다”, “사랑하다”, “말하다”, “노래하다”, “토론하다”, “상상하다”, “성공하다”, “생각하다” 등 <명사 + 하다>의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달리다”, “자다”, “먹다”, “춤추다” 등과 같은 순수한 동사형과는 다른 것이어서 우리 말에 위와 같은 개념들을 나타내는 순수한 동사형이 없다는 것은 우리말 사용자들이 이런 개념들을 어떤 동작으로서 보다는 하나의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으나 영어에서 동사로 표현되는 개념들이 우리 말에서는 <명사 + 하다>로 표현되는 사례가 그 역(逆)이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쉬 알수가 있는데 이는 서양문화의 특징이 동적(動的)이어서 언어표현도 행위자-행위(actor-action)적인 것이 지배적인데 반해 동양문화는 정적(靜的)인 것이 특징이며 어떤 현상(現象)을 볼때도 이를 하나의 동작으로 보다는 상태(state)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현상(現象)을 동작으로 보느냐 상태로 보느냐 하는 문제와 앞서 언급한 come, go와 “오다”, “가다”의 경우에서처럼 어떤 동작을 화자중심으로 보느냐 청자중심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 또 다음 항에서 언급될 동작주적(動作主的: agentive)/비동작주적(非動作主的: non-agentive)의 차이 등은 시각(perspective)의 차이문제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시각의 차이는 곧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의 가산(可算)/불가산(不可算) 구분과 관련된 언어간의 차이는 영어와 우리 말의 비교에서 쉽게 들어난다. 한 마디로 해서 우리말에서는 명사의 복수형표시가 필수적이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쓰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으며(“두 권의 책들”, “세 사람들” 등은 매우 어색한 표현이며 “그는 방학중에 많은 책을 읽었다”가 “... 많은 책들을 ...”보다 더 자연스럽다), 명사의 가산 불가산 구분은 거의 없어서 영어의 many books, much money 등이 다같이 “많은 책” “많은 돈”이 된다. 이런 차이는 서양문화에 비해 수(數)의 개념이 밝지 않은 우리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법요소와 관련하여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문법요소로 분류되는 개념범주에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처럼 겉으로 들어나는 형식상의 유표(formal marks)로 구분되어 밖으로

들어나는 범주(overt category)가 있는가 하면 일찍이 Whorf가 암호형(cryptotype)라 불러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숨겨진 범주(covert category)가 있다는 것이다. Lee(1992: 30~31)가 들은 영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즉, fold, tie, wrap, cover, fasten 등 동사들을 lift, snatch, hold, drop 등의 동사들과 비교해 볼 때 겉으로 나타난 형태만 보아서는 이들은 다같은 동사일 뿐 별개의 범주를 이룬다고 볼 아무런 유표(marks)도 없다. 그러나 깊이 살펴 보면 fold 등 동사들은 접두어 un-을 취해 unfold, untie, unwrap 등이 되지만 lift 등 동사들은 un-을 취하지 못해 \*unlift, \*unsnatch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의미론적으로 볼 때 fold 등 동사들은 사물의 표면에 무엇인가를 붙이거나 덮거나 감싸는 특정한 과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 동사들과 구분된다. 그런데 이런 동사들이 다른 동사들과는 다른 별개의 범주를 형성한다는 것은 영어상용자들의 의식수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숨겨진 범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숨겨진 범주들이 형성되는 원인을 종종 그 언어집단의 문화적 역사나 세계를 보는 시각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deer, caribou, salmon, mackerel 등은 다른 명사들과는 달리 단수형과 복수형의 형태가 같아 복수형 변화를 하는 다른 명사들과는 다른 범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동물을 지칭하며 동물 중에서도 영국에서 옛부터 사냥의 대상이 되어온 동물들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우리말의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어지다” “깨지다” 등은 그냥 보면 보통의 동사에 불과하나 모두 “-지-”가 붙어 있으며 또 이들의 타동사형으로 “떨어뜨리다” “넘어뜨리다” “깨뜨리다”가 있다는 점에서 “오르다” “일어서다” (\*“오르뜨리다” \*“일어뜨리다” 등이 안됨) 등 다른 동사들과는 다른 숨겨진 범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갖는 의미자질상의 특징은 동작이 하향성(下向性)이며 비자의적(非自意的)이고 동작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등이다.

### 3. 문법적 범주와 의미론적 범주 간의 관계

거의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두개의 기본적 개념단위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 사물(physical objects)과 행위(action)이다. 이런 의미적 개념은 대개 명사와 동사라는 문법적 범주로 표현된다. 물론 이 관계가 확일적으로 <물리적 사물 = 명사>, <행위 = 동사>가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영어의 명사에는 umbrella, pen, desk 등 분명히 사물인 것 외에 departure, happiness, boyhood 등 물리적 사물이라 볼 수 없는 것도 많으며,<sup>4</sup> 앞서 보았듯이

4. 물론 같은 명사라 하더라도 umbrella, pen 등이 departure, happiness 등에 비해 보다 명사적이어서 명사의 원형(prototype)을 이룬다는 사실이, 이들은 한 형태소(morpheme)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수형 변화를 하나 departure, hapiness, boyhood 등은 파생어이고 복수형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차이로 나타난다.

폭풍, 파도, 바람 등 사물적 특성과 사건적 특성 둘 다를 지닌 개념들은 언어에 따라 이중 하나를 더 중시하여 명사범주에 넣기도 하고 동사범주에 넣기도 한다. 또한 영어에서는 *succeed*, *marry*, *prove* 등 동사로 표현되는 많은 개념들이 우리 말에서는 <명사(성공, 결혼, 증명) + 하다>로 표현된다는 것도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물리적 사물개념에 속하는 대부분의 말은 명사이며 행위개념에 속하는 대부분의 말은 동사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리적 사물”과 “행위”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모든 언어에 보편적인 “명사”와 “동사”라는 기본적 문법범주로 이어지며, 이것은 다시 “주어”와 “술어”라는 문법개념으로 이어지고 이 개념이 다시 “동작주성(動作主性: agentivity)”개념과 이와 관련된 “인과성(因果性: causality)”의 개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두 개념 또한 보편적이어서 모든 문화권에서 언어로 표현되는데 명사, 동사 등 문법요소로 표현되는 지시적의미(referential meaning)로서가 아니라 이들 요소들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관계적 의미(relational meaning)로서 표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시적 의미에 비해 관계적 의미에는 주관성이 개입할 소지가 많아서 어떤 상황을 동작주적(agentive)인 것으로 기술(encode)하느냐 비동작주적(non-agentive)인 것으로 기술하느냐 그 상황이 갖는 객관적 속성(property)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기술하는 사람의 시각과 상황해석에 달려 있어서 언어집단 나아가서는 한 언어집단 내에서의 개인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 단적인 예를 Bright(1992: 249)에 인용된 Dorothy Lee의 다음과 같은 예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즉, “공을 던진다”는 현상을 영어상용자들은 하나의 인과적 행위를 한 것(perform a causal act)로 기술(encode)하는데 그 린랜드의 에스키모인들은 공이 손에서 떠나는 것(the ball leaves my hand)로 기술하는가 하면 나바호 인디언들은 공의 움직이려고 하는 잠재력을 실현하는것(actualize the ball's potential to move)로 기술한다고 하였다.

한 언어권내에서도 말하는 사람의 시각이나 특정국면을 강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같은 현상을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Lee 1992: 7).

You dropped the vase.	(agentive)
The vase fell out of my hands.	(non-agentive)
The vase was broken.	(agent 관계 모호)

또한 다 같이 동작주적인 것으로 표현하더라도 어느쪽을 그 상황 또는 행위의 동작주로 보느냐에 따라 아래 예와 같이 그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Bill sold the car to Jack.

Jack bought the car from Bill.

이런 선택의 차이가 뜻할 수 있는 것의 예를 가게에서 사온 물건이 하자가 있어 무르러간 상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어의 경우 이 상황에서 아래 예 a)와 b) 모두가 가능한데 a)에서는 동작주인 화자가 하자있는 물건을 샀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상황에 대한 책임이 가게 주인에게 있음을 들어내지 않고 있는 반면 b)에서는 가게주인이 동작주가 되어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그런 거래의 책임이 가게주인에게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a) I bought this toaster yesterday, but it doesn't work. I want a refund.

b) You sold me this toaster yesterday, but it doesn't work. I want my money back.

같은 상황에서 우리 말의 경우를 보자.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이 “이 토스터 어제 여가서 사간 건데요...”라고 한다고 했으며 “이 토스터 어제 당신(때)이 판 건데요...”라고 한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듯 동작주를 자기로 하고 자기가 잘못 샀다는 쪽으로 상황을 기술하고 상대방이 나쁜 것을 팔았다는 면을 부각시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앞의 영어 표현 b)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매사에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기 위한 논쟁을 꺼리지 않고 이를 오히려 높이 사는 영어상용민과는 달리 대인관계에서 시비가림이나 책임소재규명 보다는 화합과 조화를 더 중시하여 논쟁은 가급적 피하려 하는 우리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을 동작주적인 것으로 표현하느냐 비동작주적인 것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아래 예에서처럼 화자의 잠재적 심리나 의도적인 언어 전략(verbal strategy)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a) 엄마 이게 부러졌어요.

b) 남편: 이게 무슨 소리야?

아내: 꽃병이 떨어져 깨졌어.

남편: 그걸 떨어뜨리면 어떻게해!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내: 미끄러워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 누군 떨어뜨리고 싶어 그랬나. 괜히 소리지르고 그래.

c) 주인: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정부: 제가 접실 깨뜨렸어요.

주인: 어떤 접실 깨뜨린거예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가정부: 죄송해요.

a)는 무엇인가를 부러뜨린 아이가 무의식적이건 의식적이건 간에 야단을 덜 맞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이걸 부러뜨렸어요”라고 하지 않고 비동작주적인 표현을 써서 그것이 부러진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b)에서는 꽃병을 떨어뜨려 깨뜨린 아내가 어느 정도의 식적으로 그 상황을 비동작주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남편의 비난에 대한 반항적인 대응을 보아 알 수가 있다. c)는 b)와 대조적인데 가정부는 처음부터 상황을 동작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접시가 깨진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주인의 비난에 대해서도 군소리 없는 사과로 응답하고 있다.

### III. 선택성 (Selectivity)

일상 언어사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어가 어떤 상황이나 사항을 기술(encode)한다고 하나 기술하는 상황에 있는 모든 국면을 다 기술할 수는 결코 없으며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만을 기술하게 된다는 것이다. Lee (1992: 7-8)는 이점을 Slobin의 예를 빌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아이가 **Daddy kicked the ball**이라고 했다고 하자. 이것은 그 상황에 대한 극히 일부분만을 기술하고 있을뿐인 것이, 예를 들어 공을 찬 행위가 이 말을 한 때보다 얼마나 전에 일어났는지(몇 초 전일 수도 있고 몇일 전일 수도 있다), 어떤 모양의 공을 찼는지, 공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공을 오른 발로 찼는지 왼 발로 찼는지, 또 화자가 그 상황을 직접 보았는지 남에게 듣고 하는 소리인지 등등 수많은 부분들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영어상용민들에게는 일반적인 경우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Daddy kicked the ball**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상황을 언어로 기술할 때 그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항 중 무엇을 기술하고 무엇을 안하는가는 화자 개인의 시각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언어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표현에서는 과거시제는 그 상황이 발화 시점보다 얼마나 전에 일어났는가를 구분하지 않지만 많은 동아프리카 언어에는 분명히 구별되는 두개의 과거시제가 있어서 하나는 바로 전에 일어난 일,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데 쓰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기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영어에서는 공이면 모두 ball이지 공의 모양이나 색깔에 따라 명사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아 특별히 ball 앞에 형용사를 쓰지 않는 한 공의 모양이나 색깔이 기술되지 않지만 나바호 인디언 말에서는 어떤 명사가 나타내는 사물의 모양이나 그 밖의 다른 속성에 따라 그 명사를 다시

세분한다고 한다. 영어에서는 화자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가 직접 목격했거나 남에게서 들은 것이냐가 구별되지 않지만 터키어에서는 이 차이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한다. 물론 영어에서도 아래 예들이 보이듯이 화자가 원하면 이런 사항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Daddy kicked the ball a few minutes/two days ago.

Daddy kicked the big yellow oblique ball.

Daddy kicked the ball with his left foot.

I heard/They say Daddy kicked the ball.

They say Daddy kicked the big yellow oblique ball with his left foot two days ago.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갖는 모든 특성을 다 기술할 수는 없고 그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선택하여 기술(encode)하게 되는데 이 중요성의 판단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며 이런 차이는 위의 예에서와 같은 부가 서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명사 동사 등 언어의 보다 기본적인 요소의 형태차에 의해 기술되게 마련이어서 화자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 말의 경우를 보자. 우선 앞서 든 예와 관련된 것을 보면, 우리 말에도 동아프리카에서와 같은 과거시제의 세분이나 나바호 말에서와 같은 사물의 모양에 따른 명사형태의 세분 등이 없다는 점에서는 영어와 같으나 여러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그중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말에서는 대화자간, 또 이들과 기술 속에서 언급되는 객체(客體)간의 사회적지위의 상하관계와 친소(親疎) 관계가 명사, 동사, 조사, 어미 등 다양한 문법요소에 의해 필수적으로 기술된다. 예를 들어 화자는 “할아버지께 진지 드시라고 해라/하세요.” “수연이더러 밥 먹으라고 해라/하세요” “애비더러 밥 먹으라고 해라/하세요” 등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호칭선택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 구성원간의 위계(位階)의 친소(親疎)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sup>5</sup>

둘째, 우리 말에서는 동작주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구어체(口語體)에서는 동작주를 생략한 문장이 그렇지 않은 문장보다 훨씬 많아서 다음과 같은 대화는 흔히 듣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

5. 물론 영어에서도 대화자간의 관계, 대화상황의 격식갯춤정도 등에 따라 어휘 통사적 형태 등이 달라지는 이른바 기능적 변이형(functional variants)이 있으나 우리 말에서의 면밀성과는 비교가 안된다.

- 오늘은 아버님께 다녀 올거야?
- 전화 드렸더니 오지 말래요.
- 왜?
- 천안 내려가신대요.

이런 동작주 또는 주어의 생략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속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가다 말면 안가는 것만 못하다. | 쇠 귀에 경읽기다.    |
| 술 떼어놓고 삼년만에 이사한다. |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 싸전에 가서 밥 달라 한다.   | 아끼다 똥 된다.     |

동작주의 생략은 위의 예들에서 본 것 같이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동작주의 경우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 이른바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하는 동작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 말에서는 영어의 사역문에 해당하는 문장이 거의 쓰이지 않아 영어에서 엄격히 구별되는 I shined my shoes와 I had my shoes shined가 우리 말에서는 다같이 “(나) 구두 닦았다”가 되며 Let's paint the wall tomorrow와 Let's have the wall painted tomorrow가 다같이 “내일 담벼락에 페인트칠 합시다”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는 어떤 행위를 문장의 주어가 스스로 했는지 남을 시켜서 했는지 분명히 밝히게 되어있으나 우리 말에서는 그렇지 않아 미장원이거나 이발소에서 머리를 다듬고 와서도 “나 오늘 파마/이발 했다”라고 하고 치과에 가면서도 “나 이 빠러 간다”라고 하고 남을 시켜 집을 수리하고도 “지난 봄엔 집수리 하느라고 원고 한 장 못썼어”라고 한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영어에서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 또는 상태의 주체가 누구 또는 무엇인지를 가능한한 밝히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말에서는 가능한 한 생략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집단보다 개체를 존중하는 미국문화와는 달리 개체보다는 집단을 존중하며 집안 식구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주머니 돈이 쌘지 돈”이 되고 황영조의 금메달이 우리 국민 모두의 금메달이 되는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요하지 누가 그 일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한 집단과 그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은 동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한데 미국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언어사용에 들어난 좋은 예가 하나 있다. 양정모 선수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 전국이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 할 때의 얘기다. 라디오 방송에서 국제 전화로 양선수와 인터뷰를 하는 아나운서가 목이 멘 소리로 “양선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미국 친구가 이상하다고 하기에 미국

같은 무어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Congratulations!”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시각으로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 선수 개인의 명예이니 축하해 줄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이 점이 우리와의 차이이다) 고마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한 언어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그 언어의 기본적 자질(features)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언어사용자들이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언어사용에서 선택(selectivity)의 문제는 화자 개인의 심리적인 의도를 반영하는 국면도 있음은 물론이다. 영어의 경우 화자가 어떤 상황 중에서 특정 부분을 더 부각시켜 강조하려고 할 때 분렬문(分裂文: clefting)이나 의사분렬문(擬似分裂文: pseudo-clefting) 또는 수동태를 써서 It was the cat that chased the dog, What the cat did was chase the dog, The dog was chased by the cat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화자의 의도에 따른 자의적 선택이며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그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두 종류의 선택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말에서 대화자 및 객체간의 사회적 지위의 상하관계나 친소관계 등에 따른 공경도(恭敬度: deference)를 나타내는 화계(話階: speech level)의 여러가지 형태는 우리 말의 내재적인 자질이기에 때문에 그 선택은 사회규범이 모든 화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된다. 그러나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 모호화(模糊化: hedging) 등으로 표현되는 정중도(politeness)는 화자의 심리적 의도의 문제로 그 선택이 사회 문화적 규범에 의한 강요보다는 화자의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가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통명스럽게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하세요”라고 할 때 말투에서 정중함은 선택하지 않으나 “말씀”, “-십니까/-세요” 등 공대의 화계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부하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미안한 어머니는 “윤희야, 너 미안하지만 엄마 못 좀 사다줄 수 있겠니”라고 함으로써 “못 좀 사와라”보다 훨씬 정중함을 나타내지만 “-니”라는 하대 화계의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것 등이다.<sup>6</sup>

#### IV. 은유(隱喩: Metaphor)

문화적 특성이 언어에 들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 은유이다. 은유하면 문학에서 시적인 상념 등을 표현하거나 수사상의 특수 효과를 위해 쓰는 언어의 특수용법으로 알고 있는

6. Hwang(1990)이 우리 말의 이런 특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Lakoff and Johnson(1980)이 강력히 주장했듯이 은유는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 충만해 있으며 우리의 사고와 행위의 바탕이 되는 일상적인 개념체계도 근본적으로는 은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은유란 본질적으로 한 종류의 사항을 다른 종류의 사항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각하는 이와 같은 유사성을 통해 우리의 “세계” 속의 서로 다른 상황들이 관계를 이루게 되고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구조화하게 되며 이렇게 구조화된 세계가 우리의 개념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갖는 개념 체계상의 특성은 그들이 흔히 쓰는 은유표현에 들어나게 마련이다. 이점은 Lakoff and Johnson(1980)이 든 영어의 예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영어문화권에는 ARGUMENT IS WAR와 TIME IS MONEY란 개념적 은유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쓰는 다음과 같은 언어표현으로 나타난다.

#### ARGUMENT IS WAR

Your claims are *indefensible*.

He *attacked every weak point* in my argument.

His criticisms were *right on target*.

I've *never won an argement* with him.

You disagree? Okay, *shoot!*

If you use that *strategy*, he'll *wipe you out*.

He *shot down all of my arguments*. (p.4)

#### TIME IS MONEY

You're *wasting* my time.

This gadget will *save* you hours.

I don't have the time to *give* you.

How do yo *spend* your time these days?

That flat tire *cost* me an hour.

I've *invested* a lot of time in her.

He's living on *borrowed* time.

I *lost* a lot of time when I got sick. (pp.7.8)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쟁이나 시간을 위와같이 개념화(*conceptualize*)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문화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말에서는 논쟁이 다툼이 되어 논쟁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굴복시키고” “이기”기는 하지만 논쟁이 전쟁까지는 아니어서 논쟁에서 목표를 “명중”시키거나 상대를 “쏘아” 상대의 의견을 “추락”시키지는 않는다.

선택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은유도 한 집단 전체의 문화적 특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개 인간의 시각의 차이도 반영한다. 최근 모 TV 방송의 아홉시 뉴스의 진행을 새로 맡게 된 사람이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운동은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요즘은 아침에 조깅을 합니다. 공을 치는 것이 유일한 운동이었는데 최근 끊었어요”라고 한 것은 재미있는 예이다. 골프를 “공 치기”라 하고 이를 그만둔 것을 “끊었다”고 한 것은 이 사람이 평소 골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그랬는지 최근 강하게 불고 있는 사정바람을 인식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우리는 담배나, 술, 마약 등을 끊지만 연구나 봉사활동이나 테니스나 동산 등을 끊는다고 하지는 않는다.

## V.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한 집단이 갖는 넓은 의미의 문화적 특성,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관이 그들이 쓰는 언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국어와 영어의 사례를 들어 조금은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이 조금은 새로운 각도는 Lee(1992)에 제시된 분석틀과 일찍이 Lakoff and Johnson(1980)이 새로운 시각으로 부각시킨 은유(metaphor)의 개념이다. 각 문화집단은, “세계” 속의 현상들을 분류(classify)하고 범주화(categorize)하며, 한 상황이 갖는 여러 속성 중 가장 본질적이라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서로 다른 여러 상황들간의 유사성을 포착하여 개념화함으로써 그들이 지각하는 세계에 구조를 부여하는 일에서 각기 특성을 보이는데 이런 특성들을 그들이 쓰는 언어의 어휘, 문법요소, 문법요소간의 관계, 은유표현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언어에 나타난 문화적 특성에 관한 관심이 최근에 다시 고조되는 이유는 언어가 단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런 특성들을 고착화 시키는데 기여하며, 특히 은유의 사용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기도 하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자아내기도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도 당연히 이런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문용, 한영 어휘대조분석 서설, 한국영어언어학회편, 「영어교수법」, 서울: 민음사, 1979.  
 조준학, 국어와 영어의 locomotion verb 비교연구, 한국영어언어학회편, 「영어교수법」, 서울: 민음사, 1979.  
 Bright, William, et al. (ed.)(199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Vol.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R.W., and M. Ford(1964). Address in American English. In D.Hymes, ed.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 Ervin-Tripp (1974). On sociolinguistic rules: alternation and cooccurrence. In J.J. Gumperz and D.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Hwang, Juck-Ryoon(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Hwang, Juck-Ryoon(1990). 'Deference' versus 'politeness' in Korean speech.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82, 41-55.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David(1992). *Competing Discourses: Perspective and Ideology in Language*. New York: Longman.



**Abstract**

**Language and Culture: The Cases of Korean and English**

Juck-Ryoon Hwang

Department of English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substantiate with the cases of Korean and English the premise that a particular language is a representation of a particular culture. Adopting and combining the frames of description presented in Lee (1992) and Lakoff and Johnson (1980), this paper shows that the differences in the two cultures are represented in the lexical entities, the grammatical elements, the relations between grammatical elements, and metaphors in the two languages. Examples of the lexical items representing different ways of classifying our experience of the world attest to the 'semantic-psychological principle'. Examples of differences in the selectivity in encoding observed events and/or situations, and examples of different metaphors represent the differences in perspectives and conceptualization in the two culture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attention is called to the assertions made by the proponents of critical language study.